

이슈 브리핑

26-8호

2026. 3. 3.(화)

산업연구소 산업조사실 | 김한솔 선임연구원

주간 이슈 요약

- III 중국, 자동차 원가 이하 판매 금지 지침을 시행하여 업계에 만연한 소모적 가격 경쟁 및 비정상적 판촉 행위를 차단
- III Zeekr, 이탈리아 시장 진출 공식화 및 프랑스·영국·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판매·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추진
- III Tesla, 중국 데이터 규제 준수 및 자사 자율주행 기능(FSD) 상용화 준비를 위해 중국 특화 AI 훈련 센터 운영 개시
- III 美, 자동차 제조사 평균 연비 계산 시 전기차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연비 산정 가중치(FCF) 환산 계수 전격 폐지 발표
- III Lamborghini,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전체 라인업을 대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(PHEV) 전환 추진
- III Waymo, 자율주행차 하차 시 열려 있는 문을 외부 플랫폼 인력이 직접 닫아주는 서비스 시범 운영

III 중국, 자동차 원가 이하 판매 금지 지침 시행

-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·시행

* 市场监管总局发布《汽车行业价格行为合规指南》

- 할인 혜택 적용 시 원가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, 성능 향상 모델의 가격 동결, 인보이스 미발행을 통한 추가 차량 제공 등 우회적인 가격 파괴 수단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완화한다는 구상
- 이번 규제가 전기차 구매세 부과(0%→5%)와 맞물려 중국 내 제조사의 수익성 개선 및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

◆ [SAMR\('26.2.12.\)](#), [Bloomberg\('26.2.12.\)](#)

III Zeekr, 이탈리아 시장 공식 진출 및 유럽 판매 네트워크 확대

- Geely 그룹 산하의 프리미엄 EV 브랜드 Zeekr는 Jameel Motors와 파트너십을 맺고, 이탈리아에서 7X 등 4개 모델의 주문 접수를 개시
- 이어 내달 프랑스 딜러십 오픈, '26년 중 영국·스페인 등지로의 진출을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도모
-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(혹은 수입 최저가격 설정)가 저가 전기차에는 치명적인 반면 고가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, Zeekr 등의 시장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의견도 제기

◆ [Reuter\('26.2.20.\)](#), [Forbes Italia\('26.2.23.\)](#)

III Tesla, 중국 특화 AI 훈련 센터 가동 및 FSD 현지화 준비

- Tesla는 중국의 데이터 역외 반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자사 자율주행 기능(FSD)을 최적화하기 위해 중국 내 AI 훈련 센터 운영 개시
- 이번 조치는 BYD·Xiaomi 등 현지 제조사의 레벨 3 양산 준비 속에서, 중국 내 FSD 상용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행보로 평가됨

◆ [SCMP\('26.2.6.\)](#), [Reuter\('26.2.6.\)](#)

III 美, 제조사 평균 연비 계산 시 전기차에 유리한 연비 가중치 폐지

- 美 에너지부는 제조사 평균 연비(CAFE) 계산 시 전기차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연비 산정 가중치(Fuel Content Factor)* 환산 계수를 폐지
- * 전기차 에너지 효율을 내연기관차 연비(MPGe)로 환산하는 지표로, 그간 전기차 보급 장려를 위해 1대당 연비를 실제 효율보다 약 6.67배 가량 높게 반영
- 이는 '25.9월 법원이 해당 계수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이며, 미국 주요 제조사는 전동화 의무화를 덜어낸 유화적 규제 환경 속에서 당분간 내연기관차 및 HEV 병행 전략을 계속 유지할 전망

◆ [DOE\('26.2.19.\)](#), [Detroit News\('26.2.18.\)](#)

III Lamborghini, 브랜드 최초 배터리 전기차 개발 계획 취소

- 스테판 빈켈만 CEO는 '28년 출시가 예정되었던 자사 최초 배터리 전기차 Lanzador 개발을 취소하고, 대신 PHEV 모델 출시를 공식화
- 동시에 향후 모든 라인업을 하이브리드화하여 내연기관을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, 이는 럭셔리카 소비자의 낮은 배터리 전기차 수용도를 고려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됨

◆ [The Times\('26.2.22.\)](#), [Automotive News\('26.2.23.\)](#)

III Waymo, 플랫폼 인력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'문닫기 서비스' 운영

- Waymo는 자율주행차의 문이 열려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여, 배달 플랫폼 DoorDash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개시
- 자율주행차 문이 열린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근 인력에게 미션을 부여하고, 문 닫기 작업에 대해 건당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
- Zoox 등 자율주행 경쟁사가 이미 자동 개폐식 도어를 적용 중이고 Waymo도 해당 기능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, 본 서비스는 하드웨어 개선 전까지 운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평가됨

◆ [CNBC\('26.2.12.\)](#), [Bloomberg\('26.2.13.\)](#)